

医療關係의 改革

第二岡本病院 田川態雄

譯・李文奇

서울乙支病院 副院長

管理社会라고 말하는 現代社会에서는 多様な 業種이 서로의 競争을 하고 있지만 組織的으로 團結하여 社会秩序를 지켜나가고 있다. 이러한 오늘의 社会構造속에서 医療团体가 취하여야할 役割은 民主社会의 構成員으로서의 義務와 함께 組織으로 團結하여 나가는것이 要望되고 있다.

1. 序 論

病院經營이 한층 힘들게 되어가고 있다. 老人保健法の 施行을 契機로 醫療制度나 政策이 21世紀로 指向함에 있어 一大轉換을 圖謀할수 밖에 없는 몇가지 條件이 있다. 第2 土光 臨調答申 內容은 3K(国鉄, 米, 保健)中心의 行政, 財政改革이며 保健制度를 改革의 先頭로 내세우고 있다. 厚生大臣은 여러 角度에서 3) 애드벌루운을 띄우고 4) 厚生官僚도 여러가지 方法으로 醫療費抑制에 重點을 둔 많은 試案을 提出하고 있다. 各 言論機關(메스콤)도 이를 支援하는“캠페인”을 띄고 있다. 白衣의 醫療界에는 낡은 體質과 封建的 保守性, 그리고 教授를 頂点으로 한 學閥이 아직도 医科大学에서는 여러부문에서 弊端을 끼치고 있기도하다. 最近에는 特徵的인 問題를 言論이 問題化하고 있

어 國民의 立場에서 보면 이상하게 여겨지고 있다. 醫療界에서 一般的인 問題이면서 同時에 各 大学에서도 크고 작은 同質의 問題를 지니고 있다. 21世紀는 高齡化社会로 進入하고 있으며 國際的으로는 發展途上國을 中心으로 人口의 增加, 科学과 技術의 進歩等 여러 課題와 人間社会를 생각하고 있는 時点에서 人間이 生存하는 한 醫療의 問題는 도외시 할수 없는 問題이며 食糧政策과 더불어 醫療福祉政策은 不可分の 課題일 것이다.

1. 各 職能別 団体는 技術과 學術研究의 向上에 盡力해야 한다.

註1. 日本政府行政府 畢 을위한 조사위원회

註2. 保健社会部長官

註3. 정부의 공식 발표이전 띄우는 홍보활동

註4. 保健關係公務員

他職能集團은 醫療界에서 職能別로 그 集團을 強化하여 他職能集團과 相反된 立場에 서게 되어 自身の 集團만이 結束되는 것은 지양 되어야 하겠다. 醫療의 한 部門을 担当하여 各種職能人이 서로 合心하여 綜合的인 醫療의 向上을 圖謀하면서 相互補完的인 協力이 必要하다 하겠다.

病院의 平素 業務에 있어 살펴볼때, 職能別 各級機關으로 부터 病院의 職能別 職員앞으로 文書를 보내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本來病院이 組織體이고 法的인 機關인데도 불구하고 病院을 代表하는 機關責任者(病院長)에게 文書를 送付하지 않고 職能別 所屬員인 本人앞으로 送付되고 있는 양상은 어떤 면에서는 當然하다 하겠지만, 그 文書中에는 會議나 研修會와 같은 行事의 出席可否를 問議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경우 出席與否에 관해서는 何等에 疑義는 없으나 그 職員의 出席如否는 雇傭主가 決定하는 일이므로 아무리 入會會員이라도 病院에서 採用하고 給與를 支給받고 勤勞契約을 맺은 本人의 立場에서 이와같은 것을 無視하고 職能機關이 會員에게 文書를 보낸다는 것은 社會的으로 矛盾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모든 文書는 組織(病院)의 責任者앞으로 보내는 것이 妥當하다 하겠다. 病院團體에서도 같은 文書를 院長이나 事務長 또는 看護部長에게 發送하고 있는 것도 異常한 現象이다.

이러한 면에서 위와같은 現象은 하루速히 改善되어야 할 것이며 各種 職能別集團은 相互緊密한 聯関을 갖고 有機的인 結合이 必要하지 않을까 한다. 發展하는 科學과 技術에 醫療가 팀(Team)으로 參與하기 위해서는 팀워크(Team work)方式의 研修를 強化하는 것도 重要하다고 하겠다. 院內에서 서로가 每事に 同參하는 雰圍氣下에서 各 職能別職員들의 隔意없는 對話를 나눌수 있는 職場으로 만들고 患者를 위해 醫療水準의 向上을 圖謀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2. 職能別教育 方向

1. 看護協會의 看護員 教育과 制度의 改革을 全醫療人의 課題로 삼아야 한다

日本看護協會는 긴 歷史를 통해 白衣天使로서 看護職을 수행하여 여러 過程을 거쳐 오늘의 制度化로 確立되었고 第2次 世界大戰以後 美國의 看護制度를 導入한지 40년이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醫療人中에서 第一 많은 數를 占하는 看護職 教育의 目標과 制度化는 他職種의 先例도 될 수 있어 효율적 方法으로 制度化하는 것이 重要하다 하겠다. 아무리 좋은 方針을 주장해도 國家의 政策으로 制度의 變更을 이룰수 없는 것이 현실의 問題이기도 하다. 看護職에 對한 ILO(世界勞動機構)批准의 問題도 같다 하겠다.

協會 幹部陣의 努力에는 敬意를 表하나 看護協會만의 課題로서 改革은 오늘의 社會條件下에서는 無理라 하겠다. 醫療界 全體의 問題로서 國民의 課題로서의 運動으로 展開하지 않으면 解決할 수 없다 하겠다. 理想과 現實의 解決의 方策(段階的消滅)을 調和시키는 것이 重要하며 社會的으로 받아 드릴수 있는 方策과 現實에 合致하는 方向을 醫療界는 統一된 課題로 認識하고 政策的인 次元에서 摸索해야 한다.

그 方策과 現實的인 方法은

① 專修學校方式에 의한 現行의 看護學校는 一定한 年限內에 廢止한다. (附屬看護學校와 厚生省認可의 學校)

② 准看護學校는 准看護制度和 같이 廢止한다.

③ 各大學에 4年制의 看護課를 併設한다.

④ 免許는 看護婦(士)로 一元化한다.

⑤ 實習은 學校卒業後 1年間의 義務를 부과한다. (研修期間) 그 後에 國家試驗의 受験資格을 준다.

以上の 暫定的인 方針이며 基本的教育 方向은 「綜合醫療大學」을 設立하면서 轉換한다. 더우기 看協은 더욱 積極的으로 醫療界에 協助

가 要望되고 있다. 看護는 協會만의 問題가 아니며 看護職의 改善하여야 할 點은 너무 많다 하겠다. 質的向上과 自覺을 위해 全看護會員 과 全幹部陣은 看護協會의 目標實現을 위하여 具體的인 行動을 展開하고 醫療界全體의 課題로서 制度와 教育問題를 早期에 再檢討가 要望된다.

3. 当面 課題와 諸問題

1. 모든 醫療關係團體의 大同團結이 時急

管理社會라고 말하는 近代社會에서, 여러가지 業種이 서로 競爭을 하고 있지만 組織的으로 團結하여 社會秩序를 지키고 있다. 이러한 오늘의 社會構造속에서 醫療關係도 큰 職能別로 組織化되어가고 있다. 病院도 團體로서 組織化되어 있지만 너무나 多樣한 構造로 되어 있다. 또 한편 學究的課題도 많고 學會도 醫療界만큼 많은 職種도 없다는 것도 特異한 職能集團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많은 醫療關係者가 病院團體의 組織統一을 主張하고 여러사람이 呼應하고 있으면서 統一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것은 많은 有能한 人格者들이 人間關係를 維持하는데 起因된다 하겠다. 즉 大學關係의 學閥, 特히 醫科大學校는 他大學과 달라, 教授中心의 教室이 人事權을 갖고 있다. 또 社會的으로 病院關係 醫師會關係 病院團體에도 이와같은 人脈을 中心으로 組織이 運營되고 있다. 他團體나 組織에서 볼 때에 이렇게 人脈이 結合된 團體도 적다 하겠다.

近代政治經濟社會에 있어 團體가 취하여야 할 役割은 民主社會에 있어 組織으로서 團結하여 간다는 것은 周知의 事實이다. 全醫療人이 醫療關係團體의 團합을 이룩하여 全國的統一을 하지 않고서는 日本의 醫療界改革은 할 수 없다 하겠다. 現在 厚生官僚는 他部處의 官僚에 比하면 弱하지만 醫療의 改革을 官僚統制下에 施行을 計劃하고 있다. 이러한 時點에서 各各 團體別로 다른 意見이나 提案을 내놓으면 어느 하나 實現할 수 없다. 「組織은 힘이다」 모든

團體는 지금이야말로 統一과 團結을 圖謀하기 위해서 私利를 버리고 學閥을 超越하여 全國的인 組織統一에 專念하는 人士를 糾合하여 組織 統一을 이룩하여 全國的 聯合體로서의 醫療團體의 組織으로 發展시켜 나가는 힘을 傾注해야 한다.

2. 醫療團體는 全職能團體의 統一된 組織이어야 만이 國民의 支持를 얻을 수 있다.

1983년 9월 14일 東都府醫師會에서 國民의 負擔을 늘이는 醫療制度의 改革을 反對하는 京都 醫師大會가 開催되었다. 이러한 大會는 充分히 理解할 수 있으며 共同으로 反對를 위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 그러나 醫療는 醫師만이 担当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職能別 全職員이 一切가 되어 醫療를 다루고 있는 사실도 유념해야 되리라 본다.

본 대회는 國民이나 患者에게 醫師의 立場만 내세우는 大會라는 印象을 주어 各계 各층의 통일된 호응을 얻지 못했다. 國稅庁이 1983년에 發表한 것에 의하면 595名의 個人開業醫의 稅務調査의 結果 그 $\frac{2}{3}$ 에 該當하는 366名이 不正請求를 하고 그 金額은 27億엔(円)에 달하였다 한다. 國稅庁은 「氷山の 一角」이라고 말하지만 一角이 27億엔 이라면 全體로 보면 엄청난 金額이 될 것이다. 醫療費增大의 元凶이라고 할 수 있는 不正請求, 不要不當한 受診, 不正醫療와 保險外負擔을 改正하지 않고 患者(國民)의 負擔을 要求하는 것은 고려되어야 되지 않을까 한다. 이러한 社會的 狀況속에서 本大會 開催는 國民으로 부터 積極적인 支援을 받지 못하고 他分野 醫療人들의 호응도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모든 醫療界의 會員이 一體가 되어 한가지 目標를 向해 鬪爭할 組織體가 무엇보다도 要求되는 時代이다.

3. 病院은 近代化와 組織運營이 急先務이다

近代社會中에서 病院만큼 近代化와 組織化가 뒤진 곳은 他分野에서는 볼수 없다. 建物이

좋다고 하지만 病院이란 組織체로 잘 運營되지 못하고 있다면 近代化하였다 할 수 없다.

日常業務가 組織的으로 運營되어야만 近代化를 이룰수 있는 것이고 不合理나 浪費를 除去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은 日本의 경우 各病院에서는 할 수 없는 實情이다. 公的病院은 公的病院으로서의 經營不實이 있고 設置者인 國民이나 自治團體, 公共機關의 理事 立場에서 人命에 關한 問題라고 院長으로 부터 強力한 要求가 있을 경우 予算処置를 안 할 수 없다.

不急한 物件이라고 하지만 不得已 投資를 하게된다. 各部署의 職員은 自己앞에 놓인 業務의 必要性만 強調하고 있어 患者中心의 公的病院의 任務와 役割은 二次的인 것으로 취급되고 있다.

특히 醫師의 人事는 公的 病院에서는 任命權者가 知事나 市長, 郡守로 되어 있지만 實質的으로는 大學 教室의 人事에 따를뿐 形式的인 兪給에 그치고 있다. 이런점도 改善되어야 하겠다.

病院도 企業이라는 것은 再論의 余地가 없다. 企業은 組織이며, 目的達成을 위해서는 各各 努力하며 健全한 經營을 하면서 發展시켜 나가는 것이 原則이다.

發展하기 위해서는 經營狀態가 좋아야 한다는 것은 當然하다. 「企業은 사람이다」라고도 말하고 있다. 組織은 사람의 集團이기에 그 組織을 有效하게 움직이지 못하면 近代化도 發展도 있을 수 없다.

여러가지 形態의 病院이 있으나 病院의 1/3이 個人經營이고 1/3이 醫療法人이며 1/3이 公共, 其他病院으로 되어 있다. 其中에서 2/3의 病院은 經營者의 個人的인 性格이 強한 經營方針에 의해 運營되고 있는 病院이 많다. 좋은 意味에서 一人經營이라면 좋은 便이지만 매우 開業醫의 性格이 強하게 作用하는 經營이고 家族의 經營體制가 많이 있고 職員의 經營參與가 힘들게 되어있다.

이러한 점이 近代化를 뒤지게 하고있는 原因이다. 너무나 獨走하기 때문에 無計劃的인

投資가 經營을 不實하게 하는 要因의 하나가 되기도 한다. 醫師이기는 하지만 近代的資本主義經營을 合理的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한편 病院內的 職能別集團도 역시 組織的인 合理性이 缺如되고 있다. 「나의 길을 간다」하는 式의 思考에 젖어있는 職種이 많으며 따라서, 他職種에 대해 學論하기가 힘든 組織으로 되어있다. 이는 免許制度가 区分되어 있어 看護員은 看護部에서 檢査는 檢査技士가 藥은 藥師가 管理하는 식으로 되어 있어 이로인해 病院으로서의 總括하는 機能이 缺如되고 있으며, 總括할 수 있는 人材도 不足한 實情이다. 組織에서는 個人行動이나 職能別만의 行爲는 一切 許可해서는 안된다. 모든 것이 患者中心의 組織的經營이 可能한 病院으로 編成하는 것이 重要하다고 하겠다. 病院方針으로 定한 것은 철저히 履行하고, 組織에 適合하지 않은 職員은 排除되어야 하고 어떠한 職種이든간에 말은바 所任을 充實히 完隊해 나가야 한다.

病院의 方針決定에 있어서는 複數以上の 幹部會에서 病院 經營을 비롯한 제반 문제를 充分히 檢討하고 分析한 후에 合理的인 近代化를 圖謀해 나가야겠다.

縱屬的인 職能別 指示에만 順應하는 職員은 排除되어야 하고 病院 全體가 一體가 되어 處해 나갈 수 있어야겠으며 이를 위해 유능한 人材와 教育 또한 必要하다.

病院은 먼저 民主的인 運營을 할 수 있는 組織으로 變更하고 有能한 人材가 모이는 組織으로 改編하는 것이 緊急한 課題이다.

이 時代에 있어서, 高齡化社會에서의 醫療와 病院經營도 一定한 方式을 가져야 病院이 살아남을 수 있다.

眞心으로 「私」를 버리고 病院團體가 統一된 힘으로 政治的으로 力量을 發揮할 때까지 成長시키여야 하며, 여러사람 이 周知를 모아 모든 病院이 安心하고 醫療에 專念할 수 있는 姿勢로 나가야 겠다.